



불서읽기 캠페인

# 놀이 벗 삼아 치유 해답 찾아



**어린이 마음 치료**  
정혜자 지음  
교양인 펴냄 | 2만원



상처받은 어린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놀아주는 것과 놀이치료는 엄연히 다르다. <어린이 마음 치료>는 어린이 놀이치료의 개척자, 놀이치료사의 멘토 정혜자 선생의 30년 경험을 고스란히 담은 마음치료서다. 놀이치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학술이론서를 넘어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낸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갈등과 고뇌를 정화하고 전인적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의 생생한 기록이다. 놀이를 벗 삼아 치유의 해답을 찾아가는 어린이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저자 자신도 다독임을 받고 있노라 고백한다. 오히려 '어린이가 나의 스승'이라 말한다.

자기 문제에 파묻혀 스스로 엮어 만든 어둠과 작은 고지 속에 웅크린 어린이들이 놀이치료를 통해 세상과 호흡하기 시작한다. 아픔을 극복해 가는 60여 건의 임상 치료 사례

는 마음을 어진 왕으로 변화시키고 자유의지를 탄생시킨다. 저자가 소개하고 분석하는 극단적이고 특수한 경우는 아동 심리의 보편적 심층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어린이 마음 치료>는 어린이와 치료사 사이의 공감대 형성과 인내와 존중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는 마음을 열기까지 겪게 되는 좌절과 미로의 험로를 이겨내고 개척해 간다. 서서히 형성되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상처받은 감성은 회복된다. 아이는 치료자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고 긴장을 이완하면서 방어기제로 은폐했던 잠재의식을 마음 놓고 열어 보인다.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던 일상의 현실 검증 능력을 비교적 무난히 유지하려 애쓰면서 조심스럽게 무의식을 개방한다.

저자는 존경받는 불가의 스승으로부터 심리학보다 더 넓은 인간 이해의 길을 엿본다. 노자의 <도덕경>과 불경 속에서 자연의 '덕(德)을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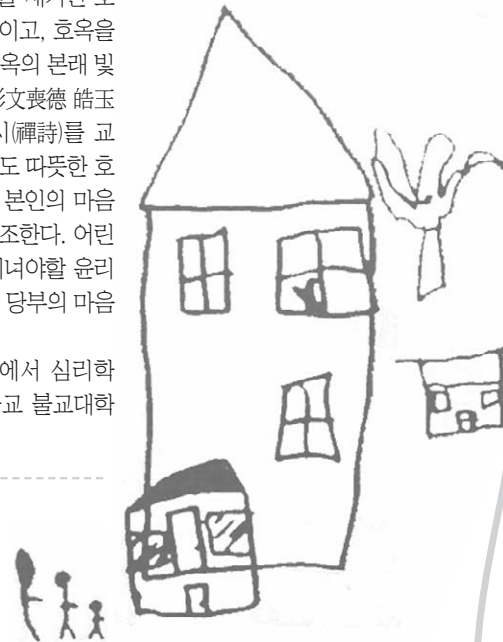
용한 현(玄)'과 대자 대비한 구원의 존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일깨운다. 노자가 세상을 향해 조용히 들려주는 '현덕'은 어린이를 만나고 그들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우는 치료자가 본받아야 할 덕목으로 강조한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은 이심전심의 교감과 온정을 베푸는 치료자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한다.

'호옥(훤 옥)에 무늬를 새기면 호옥이 지닌 덕(德)을 죽이고, 호옥을 갈고 닦으면 오히려 호옥의 본래 빛을 발한다. (皓玉無瑕彫文喪德 皓玉無瑕琢磨增輝)'는 선시(禪詩)를 교훈으로 삼는다. 차갑고도 따뜻한 호옥의 마음으로 치료자 본인의 마음을 순화시켜야함을 강조한다. 어린이 마음치료가 있어 지녀야 할 윤리적 책무와 덕목에 대한 당부의 마음을 함께 담았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불교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원에서 불교 상담관련 논문을 썼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폐아들과 일반 어린이를 통합하여 교육했다. 어린이 심리치료를 연구하는 인간 발달복지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어린이 마음을 읽고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해왔다. 현재 한양대학교 대학원과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에서 배움을 전하고 있다.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호옥(훤 옥)에 무늬를 새기면 호옥이 지닌 덕(德)을 죽이고, 호옥을 갈고 닦으면 오히려 호옥의 본래 빛을 발한다

## 산사서 읊조리는 자연의 독백

'먹물 옷 가사 장삼 내 그림자가 보리수나무의 그림자 되어 아득한 꿈으로 뜰에 어린다. 내 마음에 아련히 돋는 영원, 접동새 피를 쫓는 이런 밤이면 동글고도 환한 보름달 되어 이승과 저승을 흥건히 적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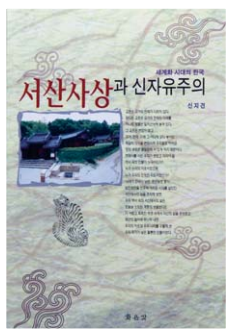
출가 사문의 삶에서 피고 지는 희로애락, 그 심원에 깔려있는 갈등과 번뇌를 달래고저 스님은 시와 차를 반려로 삼는다. <보리수 가지위에 걸린 보름달>은 20여 년간 자연과 생의 교감을 나는 영원의 풀탑이다. 해조음 들리는 빛 잔잔한 진해항에서 술바람 속 화엄 세계를 노래한다. 작설차 돌돌 끊는 자비암의 사계는 저자의 시 한 수로 전하는 평안의 선물이다.



**보리수 가지위에 걸린 보름달**  
홍천님 지음|모아 펴냄 | 2만원

그리움의 시어들이 애뜻함으로 마음을 울린다. 스님은 스스로 본래 산새였노라 말한다. 산이 좋아 산기슭에 묻혀 사는 삶이기에 전생의 과보로 출가사문이 되어 아득한 그리움을 꿈꾸었노라 한다. 호젓한 산사에서 읊조리는 자연의 독백이 그윽하다. 가연숙 기자

## 진정한 지도자상 서산대사 통해 구현



**서산사상과 신자유주의**  
신지건 지음|화은각 펴냄 | 1만3000원

이 시대의 불평등과 빈곤은 자본주의에 의한 풍속화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단지 흥소리만 없을 뿐인 한국의 처지를 바라보며 서산 대사(西山大師)의 삶을 추적한다. 16세기 조선왕조 중기 임진왜란을 전후해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자아를 완성하고 나라를 구출했던 한 인물의 조명이 다. 현대사를 사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진정한 지도자 상의 구현이다.

서산 대사는 우리 민족사의 대 사상가로 실천 불교를 행한 큰 지도자다. 임제종의 가풍을 이어 선·교 통합을 이루었고 위란에 처한 국가를 되찾아 낸 호국 성사다.

필자는 우리 역사와 서산 대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세계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관 과연 무엇인지 살핀다. '대한민국의 역사국가표준 인물'이 되어야 할 이유와 '21세기 대홍사의 역할과 그 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의 환기를 모색하며 확산을 기대한다. 가연숙 기자

## 수행과정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신에 이르는 길**  
람다스 지음·이균형 옮김|정신세계사 펴냄 | 1만3000원

힌두교 최고의 경전이자인도의 논어로 불리는 <바가 바드 기타>. 기타는 크리슈나신의 가르침을 받아 적은 경전이 아니라 크리슈나 그 자체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바가 바드 기타>를 저자의 수행과정에서 겪었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곁들여 얘기한 <신에 이르는 길>이 발간됐다.

저자 람다스의 본명은 리처드 엘퍼트. 1931

년 출생해 심리학 박사로 하버드대학교 교수직을 역임하던 중 LSD실험을 통해 인간의식의 새로운 지평에 눈뜨게 된다. 이에 캠퍼스를 떠나 1968년부터 구루 크리파·박티 요가·명상·수피와 유대교 전통을 포함한 다양한 영적 수행을 추구해왔다.

이 책은 1974년 람다스가 한 '나로파 인스티튜트' 강연의 결과물이다. '기타'의 원문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기타'를 공부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어서 '기타'와 깊숙이 만나게 해주는 흥미로운 후미길이 된다. 노덕현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월력	해인	클리어마인드
2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신심	해인	클리어마인드
4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5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6	아발로키테슈와리,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7	가시가 꽃이 되다	해거	책으로 여는 세상
8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완철	들
9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10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광우	조계종출판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